

광주·전남 혈액 비축량 '텅텅' 비상

단체 헌혈목표 평년 70% 수준...예약 대거 취소 학교 개학 연기 등 수급 차질...지역민 참여 절실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혈액 비축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지난 2월부터 계획된 지역 단체 헌혈이 대거 취소된 가운데 종교행사 중단과 교육당국은 추가 개학 연기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규모 헌혈 공급도 막힌 상태다.

1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현재 부족한 혈액량은 전국적으로 3만1700유닛(팩)이다. 수치가 상 부족할 수치가 '0' 또는 '+'가 유

지돼야 하지만 현재는 '-' 상태인 것이다.

그나마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축한 수량이 있어, 당장 '심각' 단계는 아니지만, 13일 기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적인 혈액 보유량은 3.7일 분이다. 혈액형별로는 같은 시간 기준 O형 3.0일분으로 가장 적고, A형 3.4일분, B형 4.0일분, AB형 3.9일분이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이 5일 미만이면 '관심'(blue), 3일 미만이면 '주의'(yellow), 2일 미만이면 '경계'(orange), 1일

미만이면 '심각'(red)으로 나뉜다. 혈액 당국은 안정적인 혈액 보유량을 5일 분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혈액원에서 버스로 진행되는 3월 단체헌혈 목표는 6,200명이지만, 신청자가 크게 줄어들어 4,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역시 현재 예정된 인원이 모두 참여해야 평년의 70% 정도의 혈액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반적으로 신청 인원의 실제 참여율은 80%에 그쳐, 목표 헌혈에 50%에 그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최근 해군 제3함대 사령부가 540명 분의 16만9,120ml 혈액을 확보한 것도 3월 동안 진행돼 실제 첫날 확보된 혈액은 이미 공급이 마무리됐다. 혈액원 관계자는 "혈액은 장기간 보관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고가 일정량 이상 확보돼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헌혈이 크게 위축돼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헌혈자가 없는 상황에서 1일 예상 소요량을 모두 소비했을 경우 매일 보유 혈액은 1.4일씩 소진되는 셈이다.

혈액원은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수술 환자 등을 위한 혈액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암 전문 종합병원인 화순 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순으로 혈액 수요가 가장 많다. 구체적인 수치 집계는 없지만 필요한 혈액이 없어 수술에 차질이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개학 연기와 종교단체의 집회

자체 등으로 단체 헌혈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점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이달 들어 예약된 단체 헌혈 41건이 취소됐다. 전국적으로는 427건이 연기 또는 취소돼 헌혈 비축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혈액원은 헌혈의 집 등에서 개인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대상 기념품 1+1 추가 증정 프로모션을 연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개인헌혈을 꺼리는 참여자의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시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혈액원 직원은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체온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김문근 광주·전남 단체헌혈 담당은 "헌혈센터 하루 2번 소독 등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등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헌혈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2~11	흑산도	2~8
담양	-3~12	구례	-2~13
화순	-2~12	곡성	-4~11
영광	-1~9	완도	1~12
함평	-2~9	강진	-1~11
무안	-1~9	장흥	-2~12
영암	-2~11	해남	-2~11
진도	1~9	고흥	-1~11
신안	1~9	보성	-3~11

일출 06:42 일몰 18:41
월출 01:04 월몰 11:15

목포	만조 07:16 19:16	여수	만조 01:47 13:43
	간조 12:15 --:--		간조 07:53 19:51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단속 주춤' 음주 교통사고 잇따라

지난달 62건 발생...지난해 대비 2배 급증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주춤 사이 음주운전 급증하고 있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음주 사고는 모두 62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달 30건과 비교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정기적인 음주 단속을 중단한 상태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나 운전자의 감염 우려 등이 제기될 때 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올해 1월과 지난해 1월의 음주사고는 40건과 39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 근거로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탄 음주운전이 그만큼 늘었고 사고 또한 비례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엔 음주 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광주 서구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A씨(30)씨가 벤츠 2대를 비롯해 주차 차량 등 모두 5대를 들이받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같은 날 광주 남구 한 교차로에서도 음주운전한 C씨(55)가 인도를 넘어 의류 매장으로 돌진했다.

9일과 11일 각각 서구 농성동과 북구 문흥동에서도 술을 마신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김영민 기자



결혼식장도 마스크는 필수

광주에서 1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4일 오후 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도우미, 하객들이 입장하는 신부를 바라보고 있다. /김생훈 수습기자

광주·전남 검정고시 5월 9일로 연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일을 연기했다.

15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제1회 검정고시 시행일은 당초 4월 11일에서 5월 9일로 변경되며, 합격자 발표는 6월 2일 오전 10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온라인 접수자 수험표 출력은 4월 24일부터 검정고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고사실 배정 현황 및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도 4월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조기철 기자

오늘 영하권 추위...일교차 10도 이상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이 16일부터 17일까지 영하권에 들겠다.

15일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전과 17일 오전 영하 4도와 영하 2도 등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1도, 낮 최고기온은 8도-13도 사이를 보이겠고,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5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를 나타내는 등 일교차가 15도 이상 보이는 곳이 있겠다.

현재 전남 동부(광양·여수)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대기가 확산될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찬 기자

감염 우려에도...광주 개신교 352곳 주일 예배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주일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광주시의 자제 호소에도 15일 주일 예배를 강행한 서구 한 대형 개신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를 찾아오는 교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부부나 가족 단위로 교회를 찾은 사람

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배당에 들어섰다. 하지만 일부 신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교회를 찾았다.

교회 측 관계자들이 출입구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손 소독제를 뿌려줬지만, 다른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철저히 신원을 확인하고 반드시 마스

크를 착용해야만 교회를 출입하도록 한 지난주의 모습보다 다소 느슨한 모습이 었다.

지난주 광주시와 5개 구 공무원들이 교회 앞에서 예배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교인들의 향의가 이어지자 이번 주엔 이마저도 하지 못

했다.

다만 지난주 예배를 진행한 408곳보다 4%가량 줄어든 352곳에서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광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확진자가 양립동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 아직 그로 인한 전염 사례는 없었다"며 "신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떨어져 앉는 등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예배를 한

다고 해서 위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회 주변에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도 "광주에서 연이어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결코 안심할 시기가 아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방문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찬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